

순천시, 생활체육 이용자 2년 새 187% ↑ ... ‘시민 일상 속 정착’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시민건강·도시활력

인프라 확충·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결실

순천시가 시민 건강증진과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생활체육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2년간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2022년 39만 건에서 2024년 73만 건으로 1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민 삶 속에 생활체육이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다는 평이다.

◇ 언제나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순천시는 팔마스포츠센터를 비롯해 문화건강센터, 신대 스포츠센터 및 유·청소년 수영장, 어울림센터, 국가정원스포츠센터, 조곡생활체육공원, 상사·해룡파크골프장 등 도시 곳곳에 생활체육 시설을 촘촘하게 확충해 왔다.

특히 어울림센터는 도서관과 체육시설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통

합형 체육센터로 주목받고 있다. 다목적 체육관과 장애인 당구장, 체력단련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으며 관람석 평면화, 출입문 단차 제거, 완만한 경사로 등 장애물 없는 환경을 조성해 시설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시는 시민들의 높아진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인프라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외서면에는 45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되고 있으며, 연향동 지구 내 국제규격수영장과 배드민턴 전용구장 등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2031년을 목표로 한 순천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며, 생활체육 기반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 프로그램 이용자 수 2년 새 187% 증가

순천시가 운영하는 생활체육 시설에서 헬

스, 수영, 댄스, 요가, 축구 등의 프로그램 이용자 수는 2022년 39만 건에서 2024년 73만 건으로 187% 늘었다. 이는 그만큼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순천 시민의 일상에 생활체육이 깊숙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에도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경로당, 야외광장, 행정복지센터 등 강습이 필요한 곳으로 직접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 중이다.

지도자 19명이 순천시 전역 90개소에서 요가, 체조, 탁구, 게이트볼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하루 평균 850여 명이 참여한다. 또한, 동천과 호수공원 광장 등에서 지나가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강체조 프로그램 ‘해달맞이 생활체육 교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초·중·고등학생 및 동 연령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볼링, 복싱, 요가 등 다양한 체육 종목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규모 체육대회부터 남승룡마라톤대회, 순천시 생활체육대축



전 등 대규모 행사까지 정례화 해 시민 체력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24년 남승룡마라톤 대회는 풀코스가 추가됨에 따라 참가자 수가 8,500명으로 (전년 5,100명) 크게 늘어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운동을 즐기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전

국단위 유소년 축구대회, 학생야구대회, 각종 시도 단위 대회를 유치해 스포츠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노관규 시장은 “생활체육이 더 이상 취미의 영역이 아닌 복지의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며, “모든 세대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프라 확장과 프로그램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보성군 득량만 수산자원 조성 방류행사 성료

보성군은 지난 29일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확보와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득량만 해역에서 감성돔 치어 방류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철우 군수를 비롯해 유관 기관, 어촌계장, 어업인 등 100여 명이 참여해 해양 생태계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의 중요성을 나눴다.

방류된 감성돔 치어는 약 5cm 크기로 이날 18만 마가 바다로 돌아갔다. 감성돔은 성장 속도가 빠르고, 소비자에게 인기 있는 고급 어종으로 지역 어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경우 어

업인의 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우 군수는 “감성돔 방류는 단순한 생물 방류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해양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산 종자 방류와 해양환경 보호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매년 낙지, 감성돔, 자라 등 다양한 어종을 방류하며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보성=김덕순 기자

고흥군, 주민 참여 단편영화 제작 ‘크랭크 인 고흥’ 참여자 모집

6월 15일까지 접수... 배우 이형철 연기 특강 포함

고흥군과 고흥군 문화도시센터(센터장 서성훈)는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는 단편영화 제작 프로젝트 ‘크랭크 인 고흥’의 참여자를 오는 6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크랭크 인 고흥’은 ‘영화 제작의 시작’을 뜻하는 ‘크랭크 인(Crank In)’과 ‘고흥’을 결합한 명칭으로, 고흥군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자연과 이야기를 영상으로 풀어내는 참여형 문화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그램은 연기, 시나리오 작성, 촬영, 편집 등 영화 제작의 전 과정을 주민이 직접

체험하며, 단편영화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 및 실습은 6월 23일부터 9월 8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 12회에 걸쳐 진행되며, 전문 강사진의 체계적인 지도로 단계별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1차시에는 배우 이형철이 직접 진행하는 연기 특강이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연기 지도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이후 팀을 구성해 실제 영화 제작에 돌입하며, 완성된 단편영화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시사회 형식으로 상영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단편영화 제작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고흥군 거주자 20명이며, 신청은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문화도시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gh_culturecityff)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

광양시, 도심 속 캠핑장 ‘구봉산 숲속야영장’ 문 연다

광양시는 6월 7일 오후 7시, 광양시 황길동 산45-11번지 일원에서 ‘구봉산 숲속야영장’ 개장식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장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권향엽 국회의원,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 골약동 주민과 캠핑 참가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행사는 사업 경과보

고, 기념사, 개장 퍼포먼스, 기념 촬영, 캠핑 체험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구봉산 숲속야영장은 2021년 산림청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조성된 시설로, 어린이테마파크 내 시민 휴식 공간 확충을 목표로 국·도비 19억 원을 포함해 총 2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야영데크 28면과

숲속의집 5동이 마련돼 총 33면에서 동시 야영이 가능하며, 화장실, 샤워장, 취사대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함께 갖췄다.

개장식 이후에는 주말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6월 30일 정식 개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 요금은 야영장 규격에 따라 2만 5000원에서 5만 원까지이며, 예약은 6월 중순부터 인터넷 예약사이트 ‘캠핏’(www.camfit.co.kr)을 통해 가능하다.

동부취재본부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